

보도시점

2025. 5. 21.(수) 12:00
(2025. 5. 22.(목) 조간)

배포 2025. 5. 21.(수) 09:00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종업원 1인당 매출액 20.9% 더 높아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 보유 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2.7% 상승 -
- 지식재산권 규모도 매출액에 큰 영향, 100건 이상 보유 시 50.3% 커져 -
- 국내 권리만 보유 시 매출액 증가는 20.3%, 해외 확대 시 27.3%로 상승 -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0.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건수, 국내외 병행 활동 여부에 따라 매출 성과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 보고서를 5월 21일(수)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 결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와 2010년부터 2023년 동안에 국내 기업 228,617개사의 경영정보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지식재산권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 보유 시, 매출액 32.7% 증가*>

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도 매출액에 영향을 미쳤다. 지식재산권을 한 가지 유형만 보유한 기업은 종업원 1인당 매출이 18.9% 높았고, 두 가지 보유 시 27.1%, 세 가지 모두 보유한 경우 32.7%로 매출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 보고서 13쪽

<보유 지재권 종류별 매출액 상승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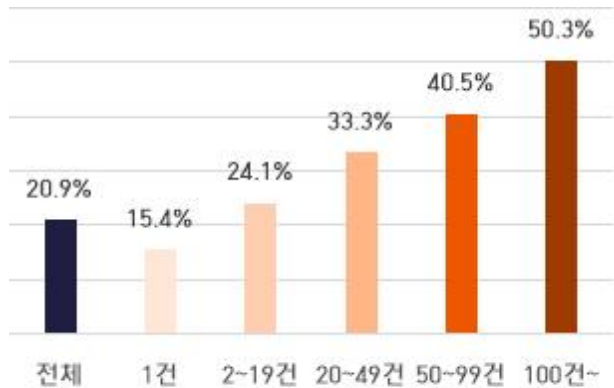


<지식재산권 규모도 매출액에 큰 영향, 100건 이상 보유 시 50.3% 상승*>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기업의 매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1건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15.4% 높은 반면, 2건에서 19건을 보유한 기업은 24.1%, 그리고 100건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무려 50.3%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도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 보고서 15쪽

<보유 지재권 규모별 매출액 상승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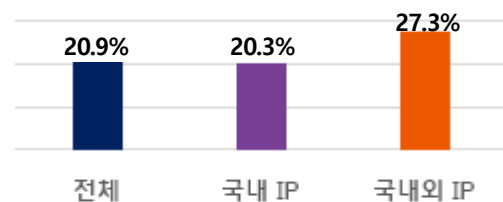


<해외 지식재산권까지 출원한 기업, 매출 상승폭 27.3%로 확대*>

지식재산권 활동 범위에 따라 기업의 매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지식재산권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보다 매출이 20.3% 높았으나, 해외출원을 병행한 기업은 27.3%로 그 격차가 더 컸다.

* 보고서 16쪽

<국내외 지재권 활동별 매출액 상승 효과>



<국내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권 확보정책 발굴·추진 계획>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히 보호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 비용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 :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 보고서

담당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진흥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 덕 원 (044-202-4225)
<공동>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담당자	전문관 임 수 형 (044-202-4248)
		책임자	과 장 서 창 대 (042-481-5168)
		담당자	사무관 김 한 식 (042-481-5662)